



심판날에 반드시 결산할 것 (5)



ICE BREAK TIME

[내 인생에 가장 가난했던 날]

삶의 여정 속에서 햇별 같이 가장 찬란하고 풍요로 왔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웠던 날과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가장 풍요로웠던 날은 :

- ▶ 찬양: 430(주와 같이 길가는 것)
- ▶ 기도: 구역원 중
- ▶ 성경봉독: 마 12:36-37

말씀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12:36-37)

들어가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통로이며, 영적 생명이 유무와, 상벌의 유무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말은 다섯 존재에 합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둘째 우리 자신에게, 셋째 다른 사람에게, 넷째 우리의 삶과 환경과 만물에게, 다섯째 영적존재에게 합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존재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합합니다. 바로 이 말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1.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고,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로 말미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히 11:3-4; 고후 4:18, 창 1장의 창조역사 등). 우리는 성경과 신앙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그 외에 영적세계 및 영적 피조물들 곧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천사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계 12:4)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사 14:13)로 저주를 받아 더럽게 되었고(겔 28:16) 결국 영원한 불(마 25:41; 계 20:10)에 던져지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 마태복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귀신이라는 표현 21번, 마귀라는 표현 6번, 사탄 3번등으로 30번 이상 표현되고 있습니다(한글성경기준).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에 30번 이상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아 내는 것을 중심사역 중 하나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¹⁾ 주님이 그러한 축사 사역에 집중하신 것은 이것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2. 사탄의 세 가지 중심 사역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게 됩니다.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형선고를 받은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게 세 가지 중심 사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최대한 종말의 때를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형집행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5가지 핵심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신것이요, 둘째는 귀신을 쫓아 내신것이요, 셋째는 병자를 치료하신 것이요, 넷째는 제자를 삼으신 것이요, 마지막으로 화목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구원역사를 이루신 일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기에 역설적으로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2) 둘째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께 직접적인 전쟁을 하거나, 절대적 영광을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존재라도 주님의 말씀한번만으로도 소멸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회도로를 선택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들의 분노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쏟아 부어 그 질서를 파괴해 버림으로 창조의 세계를 보시며 “좋았더라”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만물과 만물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3) 셋째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송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강압의 방식과 더불어, 교활한 속임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백한 죄가 되었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요일 3:8).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들이 각각의 죄를 지음으로 자기도 알지 못한채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리고, 악한 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아담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영향권아래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그 악의 통치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태어나면 그 체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3. 사탄의 능력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타락하였으나 능력자들 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강한 능력을 수여 받았고, 그 능력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회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능력으로 1) 왕들을 미혹하여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계16:16), 2) 악한 세상풍조를 만들어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하고(엡 2:2), 옫의 경우처럼 사람에게 3) 마음의 고통, 4) 질병, 5) 사고, 6) 인간관계 파괴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옫1-3장).

또한 7) 그들은 천사들과 싸우기도 하고(단 10:13)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적(거짓 영적현상, 거짓응답, 거짓 계시 등), 정서적(생각과 꿈 등에 역사),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거라사 지방에 귀신들린 자의 예등). 그러므로 타락한 영들의 공격은 매우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음으로 대단히 위협적인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의 품속에 숨겨져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요1:14, 18)께서 이 땅에 참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권세를 무너트리시고 무엇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창 3:15, 요일 3:8). 그러므로 세상 신으로 굴림 하던 마귀의 역사는 참된 왕 중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막 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5. 그런데 왜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에 당합니까?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속수무책으로 사탄에게 당하는 것은

- 1) 영적세계에 대한 무지,
- 2) 현실에 매몰되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 3) 사탄에 대한 과소평가하거나
- 4)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5)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고
- 6) 알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인 영적존재에게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주님의 주신 권세를 말로 선포하여 악한 영을 물리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림 시 까지 잔존하는 사탄의 역사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대격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에 놀리고, 속고,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다.

7. 악한 영을 쫓아냄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사 마귀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 1) 영적세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탄의 존재, 공격방식 등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영적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지침은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요일 3:16; 엡 6:12). 그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 2) 또한 우리 자신이 사탄의 침공과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3)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십니다. .
 -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 (2)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마 12:28; 마 9:29).

8. 받는 복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때 악한 영으로 부터 온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들로 부터 온 장애가 떠나갑니다. 악한 환경들의 저주가 끝납니다. 사탄으로 부터 말미암은 우리를 둘러싼 이악한 저주들, 지긋지긋한 저주들이 종결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답답함, 집착관념, 걱정 근심, 분노, 지옥 같은 마음에서 천국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능력이 배양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결단 및 적용

이미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쫓아내십시오. 이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지 공격해 옵니다.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것입니까? 그동안 당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특히 이번 명절을 당하여 우상숭배의 역사가 가득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추석 때까지 작정기도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마침내 우리 가정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행 16:31)! 할렐루야!

✓ 찬송(헌금시간): 246(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 주기도문, 구역의 교제를 나눕니다.

나눔과 기도

구역원의 기도제목과 아래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 인도자의 기도로 마칩니다.

-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이 충만한 참된 부흥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 교회 평안과 안정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 된 교회를 위해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소서 (골1:24)
- 복음으로 북한과의 통일과 민족, 인도 그리고 열방 복음화를 주시고, 이 큰일에 우리 교회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소서!
- 담임목사님 성령 충만,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악으로 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 미혹하게 하는 이단의 세력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